

2003 지방공기업의 운영방향

정 송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장

I. 머리말

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은 지난 1969년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된 이후 상·하수도, 공공의료, 도시철도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민간부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도있게 추진하여 13개 부실공기업을 정리하고, 정원의 18%에 달하는 6천4백여 명의 인력을 감축하였으며, 정년단축, 명예·조기퇴직제·연봉제 등의 경영혁신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경쟁력있는 자율경영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평가주체를 행정자치부로 일원화하고, 유능한

외부경영전문가가 지방공기업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사장추천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올해에는 우리 지방공기업은 분권과 자율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자율경영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분야별로 실효성 있는 경영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공공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상시적인 경영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겠다.

II. 지방공기업 운영실태

1. 지방공기업 기본현황

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현황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2002.12.31현재 총 320개로 상·하수도 등 직접경영사업이 184개이고 공사·공단을

비롯한 간접경영형태가 136개사업으로, 이는 1997년 256개보다 64개가 늘어난 것이다.

직접경영사업은 상수도 101개, 하수도 28개, 공영개발 40개, 지역개발기금 15개사업이 있으며, 간접경영사업은 지방공사가 의료원 34개, 지하철 5개, 도시개발공사 11개 및 기타 14개 등 64개이고, 지방공단이 시설관리공단 35개, 환경관리공단 3개, 주차관리공단 2개 및 기타 공단 1개로 모두 41개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50%미만을 출자한 주식회사(3섹터)가 31개가 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현황>

사 업 별		'02	'97	증 감
계		320	256	64
직접경영사업	소 계	184	171	13
	상 수 도	101	90	11
	하 수 도	28	19	9
	공영개발	40	47	△7
	지역개발기금	15	14	1
	지하철건설	-	1	△1
간접경영사업	소 계	136	85	51
	지방공사	64	61	3
	지방공단	41	12	29
	주식회사	31	12	19

나. 지방공기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지방공기업 재무상태는 2001년도 결산기준으로 볼 때 자산 55조 883억원, 부채와 자본은 21조 1,355억원과 33조 9,52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62.3%이다. 이는 부채비율이 1997년도 110.6%에서 48.3%가 감소한

것으로 지방공기업의 재무상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는 2001년도 결산결과에 의하면 2,327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상·하수도, 공영개발 및 지역개발기금 등 직영기업분야에서는 5,59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다. 반면에 지방공사·공단의 경우에는 7,92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이고 있으나, 이중 4개 지하철공사의 8,078억원과 33개 지방공사의료원의 410억원의 적자를 제외할 경우 567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 즉 지하철공사와 의료원 분야를 제외할 경우 공기업의 경영성과는 6,16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건설시 발행한 부채의 원리금을 지방공사 설립과 동시 이관되어 원리금상환에 따른 부담과, 원가의 30%수준에 불과한 요금체계 등에 기인한 것이며, 의료원의 경우에는 1998년도 20억원, 1999년도 73억원에 불과하던 경영적자가 1999.11월 의약품실거래상환제 시행과 2000.7월 의약분업제도가 도입되면서 매년 200여억원의 약품판매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2000년도 281억원과 2001년도 410억원으로 적자폭이 크게 증가하였다.

지방공기업의 예산규모는 2001년도 결산기준으로 18조 6,415억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은 6조 8,887억원이며 자본예산은 11조 7,528억원이다.

<지방공기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2001년말현재, 단위 : 억 원)

공기업명	자 산	부 채 (부채비율)	자 본	경영성과	예산액
합 계	550,883	211,355 (62.3)	339,528	△2,327	186,415
소 계 (직영기업)	333,020	112,134 (50.8)	220,886	5,594	115,905
상 수 도	161,780	35,409 (28.0)	126,371	2,449	42,465
하 수 도	74,667	11,220 (17.7)	63,447	28	14,145
공 영 개 발	35,461	16,288 (85.0)	19,173	1,646	21,002
지역개발기금	61,112	49,217 (413.8)	11,895	1,471	38,293
소 계 (공사·공단)	217,863	99,221 (83.6)	118,642	△7,921	70,510
지 하 철 공 사	137,544	67,748 (97.1)	69,796	△8,078	30,575
지방공사의료원	6,868	3,030 (79.0)	3,838	△410	5,553
도시개발공사	53,998	23,095 (74.7)	30,903	694	26,321
시설관리공단	7,338	2,947 (67.1)	4,391	△125	5,142
주차관리공단	44	23 (110.0)	21	8	114
기 타 공 사	12,071	2,378 (24.5)	9,693	△10	2,805

※ 제3섹터 : 자산 1조1,847, 부채 7,439, 자본 4,408, 경영성과 △100은 미포함

다. 지방세외수입 현황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중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말하며 일반회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특별회계로는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구분된다.

2001년말을 기준으로 지방세외수입은 41조 44억원으로 이는 2001년도 지방재정 총

<최근 10년간 세외수입의 지방재정 비중>

區分 歲入別 年度	徵 收 額 (億 元)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 (비율%)	421,229 (100)	468,220 (100)	483,178 (100)	580,387 (100)	766,903 (100)	666,259 (100)	697,086 (100)	904,545 (100)	960,544 (100)	1,159,589 (100)
稅 外 收 入 (비율%)	215,890 (51.3)	230,709 (49.3)	254,828 (52.7)	310,679 (53.5)	370,333 (48.3)	363,119 (54.5)	345,738 (49.6)	344,228 (38.1)	353,540 (35.4)	410,044 (35.4)
地 方 稅 (비율%)	94,622 (22.5)	110,258 (23.5)	132,286 (27.4)	153,169 (26.4)	173,965 (22.7)	184,977 (27.8)	171,483 (24.6)	185,686 (20.5)	203,616 (20.4)	266,649 (23.0)
地方交付稅 (비율%)	63,026 (14.9)	69,643 (14.9)	47,843 (9.9)	56,746 (9.8)	84,109 (11)	67,857 (10.2)	70,395 (10.1)	116,105 (12.8)	82,450 (8.2)	122,249 (10.5)
補 助 金 等 (비율%)	47,691 (11.3)	57,610 (12.3)	48,221 (10)	59,793 (10.3)	138,496 (18)	50,306 (7.5)	109,470 (15.7)	258,526 (28.6)	320,938 (32)	360,647 (31.1)

※ 지방양여금, 증액교부금,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지방채는 보조금 등에 포함

규모 115조 9,589억원의 35.4%를 차지하고 23%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있으며 이러한 지방세외수입은 년평균 또한 지방세외수입중 지방자치단체가 자

<최근 10년간 세외수입 증가추세>

(단위 : 억 원)

區 分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計	215,890 (100)	230,709 (107)	254,828 (118)	310,679 (144)	370,333 (172)	363,119 (168)	345,738 (160)	344,228 (159)	353,540 (164)	410,044 (190)
一 般 會 計	小 計	83,549 (100)	79,993 (96)	98,501 (118)	127,537 (153)	170,335 (204)	188,589 (226)	174,050 (208)	176,229 (211)	196,366 (235)
	經常的收入	15,820 (100)	17,769 (112)	23,373 (148)	30,265 (191)	38,496 (243)	42,622 (269)	37,330 (236)	40,216 (254)	32,202 (204)
	臨時的收入	67,729 (100)	62,224 (92)	75,128 (111)	97,272 (144)	131,839 (195)	145,967 (216)	136,720 (202)	136,013 (201)	164,164 (242)
特 別 會 計	小 計	132,341 (100)	150,706 (114)	156,327 (118)	183,142 (138)	199,998 (151)	174,530 (132)	171,688 (130)	167,999 (127)	213,678 (161)
	事業收入	41,395 (100)	51,179 (124)	51,479 (124)	52,006 (126)	53,511 (129)	53,814 (130)	54,068 (131)	60,016 (145)	57,227 (138)
	事業外收入	90,946 (100)	99,537 (109)	104,848 (115)	131,136 (144)	146,487 (161)	120,716 (133)	117,620 (129)	107,983 (119)	144,644 (159)

<공유재산 내역별 현황>

구 분	수 량	면 적	금 액
계			1,278,094억원
토 지	2,753,550필지	6,757,766천㎡	1,052,444억원
건 물	63,277동	28,030천㎡	115,256억원
기타(공작물 등)			110,394억원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

구 분	금 액	비 고
행정재산	107조 8,086억원	84.3%
보존재산	2조 1,478억원	1.7%
잡종재산	17조 8,531억원	14.0%

체 노력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확충이 가능한 사용료·수수료, 이자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3조 2,202억원으로 전체 지방 세외수입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다.

라. 공유재산현황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은 2001년말 현재 토지가 275만필지에 67억㎡(20억평)로 자산가치는 약 105조원(국토의 6.8%)이고, 건물은 63,277동에 28백만㎡(6,500만평)로 자산가치는 약 12조원이며, 기타 공작물은 약 11조원으로, 공유재산의 총 자산가치는 약 128조원 정도이다.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84.3%, 잡종재산이 14.0%, 보존재산이 1.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2. 주요성과

가. 지방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제도 확립

지난해에는 지방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영평가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또한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고 능력있는 전문경영인을 지방공기업의 사장(이사장)으로 영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동 추천위원회의 구성원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의회의원은 배제토록 하였다.

이와함께 그동안 이익잉여금이 많이 축적된 공영개발사업의 이익금을 재해복구, 경영수익사업 등을 위해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공단외 출자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은 출자지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정하고, 감사결과 부실경영이 인정되는 경우 주식의 양도, 법인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사·공단의 출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개선조치는 지난 1999년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시행된 지방공사·공단 설립인가승인권과 정관변경승인권 등의 지방자치단체 이양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부실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해임, 조직개편 등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영진단제도 도입 등의 조치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체제 구축을 더욱 강화하게 하였다.

나.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마무리

국민의 정부에서 개혁과제로 채택하여 1998년부터 추진해오던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은 1998년 80개 공사·공단중 민영화·청산·통폐합 등의 조치를 하기로 계획한 14개 대상 공기업중 13개 기업은 통·폐합 등을 마무리하였고, 나머지 한 곳은 현재 매각을 추진중에 있다. 인력의 경우에는 당초정원 35,392명의 18%인 6,435명을 감축하였고 이와 더불어

연봉제·정년조정·퇴직금지급을 개선, 간호직의 직급호봉제 실시 등 각종 경영혁신제도 8종을 도입하는 등 2002년말 대부분 마무리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감사원에서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추진실태』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지적된 236건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조기이행을 위한 지침을 시달하고,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한 결과, 2002년말현재 대부분 이행을 완료하였다.

다. 세외수입 확충기반 조성

2001년부터는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와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및 향토지적재산 육성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고, 2001.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수지분석매뉴얼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합리적인 경영수익 분석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경영수지분석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사업경영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2001년과 2002년에는 42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유망한 향토지적재산 46개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지방교부세를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는 향토지적재산관련 사계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향토지적재산본부의 설립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화, 상품개발의 지원과 자문을 담당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의 교육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공유재산의 생산적활용 제도화

공유재산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그 중요성과 활용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그간 공유재산 활용도 증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 벤처기업 창업자,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자, 외국인 투자기업, 지역내 공장 설립자, 지역특산물 생산·전시 판매시설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투자환경 조성에 주력해왔다.

2002년에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행정력 낭비 및 매각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재산 처분범위를 현재의 지가수준에 맞춰 상향조정(서울시 5억원, 광역시·경기도 3억원, 시·군·구 2억원 이상) 하였다. 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특화 관련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수의계약대상, 무상대부대상, 20년간 장기대부대상에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을 추가하여 공유지를 제공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시장의 저금리화로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연체율이 시중금리보다 높아 대부료·사용료 이자율을 연8~6%로, 매각대 이자율을 10년간 분할납부시 연5~8%→연4~6%로 인하하였으며, 20년간 분할납부시 이자율도 연3~8%→연3~6%로 조정하고, 연체이자율도 인하하되 연체기간별 차등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연체료 부과기간도 60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조정하여 체납방지 및

조기납부를 유도하였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일회성 공연·축제행사를 유치하여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투·융자심사범위를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2이상의 시·도가 투·융자하는 사업에 확대 적용하였다.

Ⅲ. 2003년 지방공기업 운영방향

1.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쟁력 제고

우리나라의 지방상수도사업은 167개의 특·광역시와 시·군단위로 운영됨에 따라 상수도시설의 과잉·중복투자, 단체간 지나친 요금격차, 영세단체의 과다 등의 운영상 문제점이 노정되어 지방상수도의 경영개선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한 결과, 급수구역을 광역화하고 상수도사업의 경영형태를 변경하는 등의 방안이 제기되어 우리부에서는 여러 가지 경영혁신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상수도 투자재원의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수도요금의 현실화는 2004년까지 완전 현실화목표로 금년도에는 9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함께 2001년말 현재 76%수준인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후·불량관의

교체, 불감계량기 교체, 누수탐사 등을 중점 지도·지원해 나가고, 고액요금 영세단체의 노후수도관 개량·교체사업비 일부수요를 지방교부세로 보전해 줄 계획이다.

또한 현재 관청회계방식으로 운영되는 66개 지방상·하수도사업에 대하여는 기업회계방식을 적용하는 지방직영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정확한 원가산정을 통한 적정한 요금부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구현하고 사업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에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작년 12월 수도법개정으로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환원됨에 따라 57개 지방자치단체가 기 부담한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용 채무(6,888억원, 연간이자 340억원정도)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인계·인수가 차질없이 이루어지게 최대한 지원하여 이자부담에 따른 상수도 경영상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2. 지하철 경영의 개선추진

지하철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기업으로 현재 서울(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대구, 인천, 광주 등 5개 공사가 설립되어 있으며, 이중 광주지하철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운행을 앞두고 있다.

지하철은 건설비용의 과다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매년 큰 폭의 경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부채의 원리금상환과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체계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하철 부채와 경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부채와 운영부채를 구분하여 건설부채는 건설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을 상향조정과 함께 당해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상환토록 하고 운영부채는 당해 지방공사 책임하에 해결해 나가되, 원가의 30%에 불과한 지하철요금을 현실화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설비의 국비지원을 상향조정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건설부채를 점차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하철요금 현실화문제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으로 요금을 단시간내에 현실화하기에는 서민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곤란한 실정으로, 년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부에서도 이러한 지하철 부채문제와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지하철 경영혁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운영비 지원확대, 건설부채와 운영부채 분리, 외주가능한 역무·일반전기 등 아웃소싱 확대 등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당해 지하철의 경영개선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지방공사의료원의 기능강화

지방공사의료원은 의료보호환자, 저소득 영세서민, 행려환자 및 법정전염병환자 등을 중점 진료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34개 의료원이 설립·운영중에 있다. 이들 의료원은 무의탁환자, 저소득층 환자 위주의 진료특성상 수익의 한계와 민간병원과의 진료비 격차 등으로 대부분의 지방공사의료원이 경영적자를 보이고 있다.

우리부에서는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 낙후된 의료원의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해 나가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병동 신설을 적극 지원하여 현재까지 9개의료원에 국비 1,093억원과 지방비 1,690억원등 총 2,783억원의 건축비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2003년에도 4개의료원의 이전신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에도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사업비와 영상저장장치(PACS,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구입비를 지원하여 진료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의료원의 진료수익 증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사의료원의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공중보건의를 지방공사의료원에 증가 배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의료원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 노인요양병원의 민간위

탁 계획을 지방공사의료원과 연계시켜 효율적인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4. 지방공기업 자율·책임경영 체제 강화

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강화

2003년도 경영평가는 경영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사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평가군을 분류하며, 전문가의 평가단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지표를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등 4개로 대분류하고 기관별, 사업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세부평가지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세부평가지표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적절히 혼합하되, 계량지표의 비중을 높여 경영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둘째로 경영평가의 대상평가군은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도시개발, 지하철, 공단, 의료원, 기타공사 등 사업유형과 특·광역시, 시·군·구 등의 설립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로 경영평가단은 평가대상 기관별로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영학, 경제학 등 관계분야 전공교수, 외부실무전문가로 구성하고 경영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하철과 농수산물공사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의 경영평가는 경영평가의 기본방향, 평가대상 및 경영평가기관, 경영평가지표 등을 명시한 경영평가지침을 3월 말까지 시·도에 통보한 후, 4~8월간 현지평가를 실시하고 10월경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 결과를 시달할 계획이다. 이러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가~마급의 5단계로 등급을 부여하여, 등급에 따라 임원은 150~450%, 직원은 100~300%범위내에서 기관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나. 실효성있는 경영진단 실시

2003년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경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기업에 대해 경영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경영진단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진단반에 의해 해당공기업을 대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며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함으로써 해당공기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참고로 1999. 1월 경영진단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17개 부실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공기업대표자 2명을 해임하고, 정원의 3.3%인 365명의 인력을 감축하였으며 상당수 조직을 개편하는 경영개선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다. 신설공기업 운영지도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지방공기업 설립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지방공기업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경영혁신제도의 도입이행 여부, 조직 및 인력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기업 설립시부터 각종 제도나 규정숙지 미흡으로 인한 운영미숙과 부실경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3섹터인 공사·공단외 출자법인의 경영부실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지분의 초과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체없이 주식의 처분,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출자법인에 대한 검사결과 부실경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청구 등 강력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라.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지속추진

지방공기업의 경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혁신은 그동안 정부주도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제도를 대부분 마무리함에 따라 금년부터는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을 자율경영혁신체제로 전환하여 지방공기업 스스로가 자체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자구노력을 통하여 경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적인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지방채발행 요구액 삭감 등 재정패널티 적용방안 등을 강구하며, 추진실적이 극히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직원 책임규명과 금년도 평가결과 등급구간을 하향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마. 지방공기업 제도개선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 등에서 유형자산 상각시 사용되는 내용연수에 대하여 전문기관 연구용역중에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형자산의 종류와 내용연수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합리적인 상각을 통한 경영성과 표시 및 재산상태를 적정히 하고자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며,

또한, 현재 행정자치부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5. 지방세외수입의 확충

가. 수수료·사용료 현실화의 효율적 추진

우리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전종목의 수수료·사용료를 대상으로 현실화5개년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수수료·사용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조정을 위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처리하고, 처리건수가 많고 징수금액이 큰 조례규정 수수료를 3개년에 걸쳐 매년 30종 정도를 중점선정하여 원가를 분석하여 적정요율 범위내에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현실화하도록 하고 법령규정수수료는 우리부가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물가변동요인을 감안 현실화 해 나갈 계획이다.

나. 체납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지방세외수입중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의 경우 장기체납 사례증가 등으로 건전지방재정확립에 장애가 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과태료·과징금을 법이 정한 절차내에서 엄격히 부과·징수하고 체납액은 반드시 강제징수절차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입확대와 건전지방재정을 확립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정리를 위한 우수추진시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파급시키는 등 비교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또는 신탁관리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의 자금관리 또는 송금실태의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입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 신규 세외수입원의 적극 발굴로 세외수입확충

지방자치단체의 처리사무중 다수사무가 수수료 징수근거의 미비 등의 이유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최소한의 행정처리 비용징수등 유료화 노력이 미흡하였고 아울러 행정환경변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의한 신규업무가 발생함에도 세외수입 발굴 노력이 미흡하여, 앞으로는 특정인에 이익이 수반되는 무료제공서비스의 유료화를 기하도록 유료화가능 무료사무의 일제조사와 처리비용분석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처리비용을 징수토록 하면서 장기적으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고 있음에도 국가수입으로 귀속되고 있는 과태료·벌칙금 등의 지방수입화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지식정보화시대에 지역의 전통문화유산이나 고유기술 등 향토지적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상품화해 나가므로써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을 확충토록 하고 아울러 이러한 향토지적재산을 지역고용 증대를 기할 수 있는 향토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라. 자치단체별 연구체계구축으로 자 주재원 확충노력 전개

우리부는 지식정보사회에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충과 지역별 체계적인 연구를 기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기관의 노하우(know-how)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실무경험을 상호연계 운영하는 세외수입확충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장단기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지방자치단체별 연구성과를 매년1회 정기적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므로서 전 지방자치단체간에 연구한 성과와 정보를 상호간 교환하고 공유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마.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전산화로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은 종류의 다양성과 업무처리 부서의 다원화 및 수작업처리로 인하여 다른 업무에 비해 효율적 처리가 어려웠으나 금년에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세외수입업무의 부과·징수등 전분야의 전산화를 마무리하여 세외수입 총괄부서와 각 업무처리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처리 연계강화와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 세외수입 업무의 실시간 현황분석 그리고 부과액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증대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을 금년 상반기에 개발을 마무리하여 전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6.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

가. 공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2003년에도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공유재산의 활용 극대화에 역

점을 두어 수의대부 대상확대, 대부기간 장기화, 대부요율 추가인하, 건축물 축조 허용범위 확대 등 새로운 정책 발굴과 법령 개정작업을 통해 기업유치에 최적의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공유지 처분으로 인한 공유재산 보유량의 급속한 감소는 지속적으로 억제하여 향후 행정수행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지해나갈 예정이다.

나. 공공청사 운영의 적정화 유도

언론매체에서 혈세 낭비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나친 규모의 청사신축을 억제하기 위해 2002년에 지방청사 표준면적 산정기준을 제정,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반영토록 하였던 바, 금년에는 지방자치단체별 현황 비교자료를 산출하여 교부금 배정과 청사정비기금 지원시 반영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지난해 지방청사 및 각종회관의 관리·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제 정리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면복지회관, 마을회관, 기타회관을 행정용도로 전환하거나 대부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수익을 증대할 예정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각종 회관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통해 관리 및 운영상의 예산낭비를 줄여 지방재정의 건실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민에게 다가서는 행정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 관사, 전용차량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수범 사례를 공포(『AAA제도』)하였던 바, 금년에는 집무실 면적·위치, 관사 면적·용도, 전용차량 배기량·운행기간에 대한 현황을 효율적으로 대비할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는 등 상기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스스로 주민봉사행정을 수행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이다.

다. 지방관공선 현대화사업의 지속적 추진

현재 보유중인 지방관공선들은 지속적인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질적·양적 측면에서 상당부분 개선이 되었지만, 연근해 불법단속 업무의 증가, 해양오염사고 증가,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등으로 선박건조 소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선박 역시 선령노후와 운항실적 증가로 발생하는 고장·속력저하 및 안전사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방관공선 현대화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바, 3차5개년 계획의 2차년도인 2003년에도 총사업비중 24억원을 지방교부세로 지원하여 20척의 선박에 대한 건조 및 구조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라. 물품관리의 효율화 도모

그 외에도 물품의 경우 정수관리 범위의 재검토, 물품분류번호의 재구성, 내구년수의 조정 등 지속적인 제도정비와 물품관리의 전산화를 통해 행정력 소요를 최소화하

면서도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품관련 행정을 발전시켜 나갈것이다.

IV. 맺음말

올해에도 우리 지방공기업은 여러 사업분야에서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국민

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공기업은 지속적으로 강력한 경영혁신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겠으며, 또한 화합과 협력의 생산적 신노사문화를 토대로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지방공기업이 되어야 하겠다. 

<참고> 地方公企業 現況(總320個)

(1) 직접경영사업(184個)

(2002. 12. 31현재)

세부사업별	단체수	단 체 별
계	184	
상 수 도	101 (특·광역시 7, 시 73, 군 2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동두천, 안산, 고양, 파천, 구리, 평택,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양주, 하남, 용인, 파주, 이천, 화성, 광주, 연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영월, 평창, 인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정선, 철원, 고성,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예산,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울진, 상주, 문경, 경산, 창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창원, 제주, 서귀포, 북제주, 남제주
하 수 도	28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의정부, 광명, 부천, 안산, 파천, 성남, 구리, 춘천, 속초, 청주, 전주, 완주, 목포, 나주, 영암, 경주, 구미, 경산, 창원, 김해, 제주
공영개발	40 (시도 6, 시군 34)	인천, 울산, 충북, 충남, 전남, 전남(도청이전) 수원, 성남, 의정부, 안산, 고양, 구리, 평택, 남양주, 오산, 시흥, 의왕, 안성, 김포, 춘천, 원주, 속초, 강릉, 청주, 충주, 음성, 천안, 아산, 보령, 연기, 계룡, 익산, 목포, 순천, 광양,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양산
지역개발 기 금	15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간접경영사업(136個)

형태별	사 업 별	단체수	단 체 별
계		136	
지 방 공 사	소 계	64	
	지 하 철	5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대구, 인천, 광주
	의 료 원	34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금촌, 이천, 안성, 포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청주, 충주, 천안, 공주, 서산, 홍성, 군산, 남원, 순천, 강진, 목포, 포항, 김천, 안동, 울진, 마산, 진주, 제주, 서귀포
	도시개발	11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기 타	8	서울농수산물공사, 마포개발공사(서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구리시),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광주지방공사, 구미원예수출공사
	민관공동 출자사업	6	지방공사인천터미널, 하남도시개발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장흥표고유통공사, 청도지역개발공사, 안성축산진흥공사,
지 방 공 단	소 계	41	
	시설관리	38	서울,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부산, 부산환경, 대구, 대구환경, 인천, 인천남구, 부평구, 계양구, 인천서구, 대전, 광주환경, 울산,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과천, 용인, 파주, 안성, 김포, 화성, 연천군, 동해, 속초, 구미, 창원, 거제
	주차관리	2	춘천, 청주
	기타	1	창원경륜
주 식 회 사	소 계	31	
	25~50% 미 만 출 자	23	부산센텀시티(주), (주)부산전시컨벤션센터, (주)부산관광개발, (주)대구전시컨벤션센터, 대구광역시복합화물터미널, (주)광주광역시정보센터, 한국CES(주), (주)대전농산물유통센터, (주)K3I(대전종합정보센터), 부천카툰네트워크(주), 부천무역개발(주), (주)효원, 안산도시개발(주), (주)김포캐릭터월드,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 전북무역(주), (주)전남무역, (주)구례지리산생물, 가온소프트(주), (주)무학산청생물, (주)경남무역, (주)제주교역,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25% 미 만 출 자	8	(주)도봉, 코다개발(주), (주)테즈락스포츠, (주)티아이엔시(대구종합정보센터), 경북통상(주), 파주시혼합사료(주) (주)경축, 농협대구경북유통(주)